

28 ⁴⁴/₉₂ 造法式 (-)(=)

(영조 법식)

영조 법식은 지금으로부터 약 900년 전

북송(北宋) 마순기경 ^{李順仲}이 편찬한

중국 고대 건축 기법과 원리를 집대성한

중국 건축의 바이블인 동서에 근대 무조

식조 건축의 핸드북 (Hand Book) 역할 등을 했

다 할자는 국문 개발 연구원장 재임 당

시 국로개비라 此禮記 古전 번역 계획

을 세외 <周禮考工記(주례고공기)> 타

<天工開物(천공개물)>의 번역이 이어 세번

째 번역 대상이 이 <鑄造法式> 이었다

영조법식이란 책을 구하기 위해 국내

도서관에 조희해 선생에게 구할 길이 없

었다 그래서 마침내 대안대학에 교환교수

로 가 있는 정희대학의 조동규(趙東奎)

교수에게 제 연락 행드니 복사본을 보내

왔었다 번역을 하기 위해 우선 명동에

있는 화교 (華僑) 학회 ^국 문학박사 (중국어) 에

제 보였더니 서문을 막 쓰고는 무슨 말인

지 전혀 알 수가 없으 했다 지금 그 등이

쓰는 백화문 (百華文) 이 아니고 고문이기

때문이라 했다

그래서 궁리 끝에 한학을 하는 사람 등이

몰려있는 국사편찬위원회와 점선문화

연구원 및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등을 오진

모 (吳鎮模) 전산·자문설장이 자점 들르다

냈다 그러니 다들 고쳐줌 전래 걸래 러자

다 분가능 하므로

그런데 세종대왕 기림 사업회도 이해찬

(李海贊) 선생이 이것을 누가 번역 하나 하느

냐? 우리 회장의 강령한 의지 이면 그러면

고문이 되어서 번역이 하도록 제 정

그럼이면 내가 대만에 가서 고문을 해 주

할 수 있는 자료를 사서 공부해 가면 성

해 볼 때나 시간과 자료 구입비를 줄리

는 사례의 있다

구정후 초원한 원고료와 자료 구입비를

과 西京(서경)과 東都(동도)의 천문만호

(牛門萬戶)의 두 시 전설과 낙양(洛陽)의

가람(사찰)과 거대한 운하 등이 한갓 詩人

(시인)의 붓끝에 서서 크고 화려함을 노래

해 전해 왔을 뿐 그 전설의 기법이 그 형

상을 전해 온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는데

그 행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李明仲

(李誠)의 기록이 있어 큰 단행이었고

기 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이 바깥까지 감사의

뜻을 전해온 사람은 문화재 관리 위원 이인 申榮勳(신영훈)

선생만이 있다